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 **교육을 생각한다** | 문화와 창조 | 도시와 삶

한국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성공하려면

김왕복

"

입학사정관제가 지향하는 목표는 두 가지다. 대학은 수능이나 내신에 구애 없이 전형 요소를 다양화하여 잠재력이 뛰어난 인재를 뽑는 것이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소질과 적성 중심으로 교육시켜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를 줄이면서 공교육도 정상화 시키는 것이다.

"

금년도 국정감사 교육분야 화두는 단연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여부였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60개 대학 모두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고,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도 교수·학자·교원의 60~70%가 특혜 가능성과 부정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교육과정, 선발 방법 등에 정통한 전문가를 채용하여 학생의 성적, 개인 환경, 잠재력 및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미국의 주요 대학들이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학 자율화를 지향하는 현 정부가 도입하여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 등 3불 정책은 진보와 보수 집단 간에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교과부로서는 3불제도의 존폐 논란을 비켜가면서 대학자율화를 달성할 수 있는 묘책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입학사정관제가 지향하는 목표는 두 가지다. 대학은 수능이나 내신에 구애 없이 전형 요소를 다양화하여 잠재력이 뛰어난 인재를 뽑는 것이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소질과 적성 중심으로 교육시켜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를 줄이면서 공교육도 정상화 시키는 것이다.

도입 취지와 목표는 좋다. 그런데 운영 과정상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왜일까? 도입 초창기의 시행착오라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문화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많은 미국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 사례들을 살펴보자.

#1. 수험생 A양은 학생회장, 내신 1.3등급, 텝스 700점, 봉사활동 100시간 등 훌륭한 스펙을 갖췄지만 입시 정보와 진학 지도 부족으로 고액의 컨설팅 수강 중(경향닷컴).

#2. 교사 B는 대학입시 정보 부족, 과도한 업무량으로 진학지도에 골머리를 앓음. 모 학교에서는 학생이 3학년 때 진로를 바꾸자 과거 학생부 기록을 조작한 사건 발생(경향닷컴).

#3. 대학 C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특기자 전형, 지역균형·농어촌 선발 전형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영·수 점수와 내신 점수가 높은 학생들 위주로 선발.

#4. 비정규직 입학사정관 D는 업무 과다와 전문성 부족으로 사실상 잠재력과 소질 있는 학생 선발에 어려움을 호소. 교외 수상 실적, 공인어학 성적 없이 교내 활동 실적만으로는 변별하기 곤란. 공정성 시비 우려로 자연히 내신이나 성적 위주로 선발.

우리나라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정착하려면 위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첫째로 학생들이 사교육 의존 없이 모든 것을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해야 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개발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교사들의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보다 교육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

둘째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재능과 진로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워 학생의 잠재력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진로 갈등으로 방화를 하고, 본의 아니게 온 가족을 죽음으로 내 몬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셋째로 대학은 성적 우수자 중심의 전형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우선 정규직 입학사정관제 인원을 늘리고 실력 있는 입시 전문가로 양성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엄격한 입학사정관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외부로부터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들의 사회적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학은 교사가 작성한 학생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수험생과 학부모는 대학의 독자적인 평가 기준과 선발 방법을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과 사회발전은 요원하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입학사정관제는 우리나라 교육의 병폐인 과다한 사교육 의존과 획일적인 성적 위주 선발 방식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행정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민주, 이래도 민심 못헤아리면 간판 내려야

민주당이 27일 실시된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에서 참패했다. 지역민심을 얕잡아 본 오만과 구태(舊態)에 대한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으로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민주당은 이번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꿨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 후보에게 패한 적 있는 후보를 불과 4개월 만에 재출마시킨 자체가 잘못이라는 얘기다.

한번 지역민들로부터 평가받은 인물을 재공천한 것은 지역민을 무시한 오만한 발상이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 7·28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지역민심의 경고를 외면한 채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심한 구태의 전형이다. 민주당은 자당 후보가 무소속은 물론 야 4당 단일후보에도 뒤져 3위를 기록하는 수모를 스스로 자초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번 서구청장 재선거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과거처럼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말로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선 떠나간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선 공천 실패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서구 국회의원들과 지역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당 지도부부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은 광주·전남을 텃밭이라 생각하는 미몽(迷夢)에서부터 깨어나야 한다. 호남표를 '주머니 속의 표'로 여기고 안주해선 수권정당이 될 수 없다. 지역민심이 뭘 원하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헤아리지 못하면 정당 간판을 내려야 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10·27 재선거에서 나타난 지역민심의 경고를 또다시 뭉개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정당이 시대의 변화를 좇지 못하고 민심을 거슬리는 그 순간부터 정당으로서의 존재가치는 사라진다. 환골탈태하지 못하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주민 무시하는 지방의원 '관광성 외유'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외유가 또 다시 말썽을 빚고 있다. 5기 의회가 개원한 지 고작 넉 달째인데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외유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각 지자체마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도 너도나도 관광성 외유에 나서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 동구의회 의원 7명은 지난 26일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연수를 떠났다. 이들은 경비 1513만원 전액을 구청 예산으로 책정했다. 북구의회 의원 8명도 1710만원의 구청 예산을 들여 지난 26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연수에 나섰다고 한다.

광산구의회 역시 의원 13명이 최근 해외연수를 이유로 일본과 베트남을 다녀왔고, 순천시의회는 이달 초 의원 6명이 순천국제정원박람회 국제회의 본행사가 열리는 날 일본 연수를 떠나 구설수에 올랐다.

의원들은 지역실정에 꿰맞춰 해외연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관광 성격이 짙고 실효성도 의문시돼 명목 뿐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각 지자체의 재정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강행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 동구의 재정자립도는 15.5%, 북구 15.85%, 광산구 19.3%로 전국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이고, 동구과 북구, 광산구, 남구 등 4개 자치구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다.

그렇더라도 의원들이 선진국에서 많이 보고 배워 의정에 반영한다면 해외연수를 말릴 이유는 없다. 그러나 새 임기 때마다 외유 타령이라면 목적이 뻔한 것 아닌가. 그동안 전임자의 보고서도 많이 쌓였을 테고, 인터넷만 뒤지면 현지 실태를 훤히 알 수 있는데도 굳이 '해외'를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제가 아니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의원들이 과연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지 자문해 볼 일이다.

종교칼럼

이덕윤

문화유산을 만나는 여행의 길목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의 침략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은 문화재가 약탈당한 아픈 역사가 있다. 조선조 말 고종 임금은 일본인들이 보여준 청자를 보고 "그것이 어느 나라 도자기인가"라고 물었을 정도라고 보면 그때에도 문화재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것 같다.

우리에게 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결국 바람 앞에 등불 신세인 대한제국의 운명과 함께 많은 문화재도 수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해방이 되고 1962년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 문화재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을 보면 비로소 40여 년의 역사가 우리들 문화재 보존의식의 깊이가 된 것이다.

익산이 고향인 나의 어린 시절, 소풍 장소는 으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미륵사지석탑과 왕궁리 5층 석탑이었다. 백제시대 최대의 절터에 남아있는 미륵사지석탑은 국보 제11호이며, 마한시대 도읍지인 왕궁의 5층석탑은 국보 제289호이다.

지금은 언감생심이지만 당시 우리가 찾아간 곳은 지금처럼 문화재로서의 위용을 갖추지 못한 그저 편안한 소풍장소였다. 보물찾기에 좋은 친근한 장소로 천진난만하게 맘껏 뛰어 놀고 기어올랐던 그곳이 우리에게는 문화재인지, 왜 저렇게 한쪽은 허물어진 허술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는지, 선생님의 주의사항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었다. 가치를 모르니 봐도 볼 줄을 몰랐고 들어도 들을 줄 몰랐음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문화재 훼손에 일조를 했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 고향의 문화재 소식을 접할 때의 나의 관심은 남다르다. 나와 상생의 관계를 알고 바라보는 문화재는 스스로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지역적 공감대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떻게 이바지해야 할지 관심과 행동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사실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긍정적 반영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0월은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다.

사실 우리의 주위는 그 가치를 두고 바라보면 끝없는 유형무형 문화재와 천연기념물의 보고이다. 우리 문화재를 접하여도 특별히 관심이 없다면 그 존재는 무의미한 것이며, 역으로 그 의미를 알고 만나는 것은 비록 짧을지라도 영혼의 울림을 줄 것이다.

전 문화재청장이었던 유홍준 교수는 평소에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미술과 문화재에 눈을 뜰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좋은 미술품을 좋은 선생과 함께 감상하며 그 선생의 눈을 빌려 내 눈을 여는 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아직도 문화재를 보는 우리 국민의 상황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원불교의 대산종사는 "유구한 민족의 전통적 슬기와 참됨을 바탕하여 세계적 정신운동을 이 땅위에서 달성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을에 문화유산을 향해 떠나는 여행길목에서 많은 분들이 앞서간 선조의 숨결과 만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들의 새로운 미래를 비춰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걷게 될 '오래된 미래'는 아는 만큼 우리 몫으로 다가오리라 생각한다.

〈원불교 광주교당 주임교무〉

기고

김용민

요양보호사 교육은 신뢰구축 첫 걸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지 3년이 지났다. 하지만 공급주체의 다원화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저하, 과열경쟁에서 오는 여러 가지 폐단, 지역간 요양관련 인프라 차이로 오는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예방적·정서적 서비스 지원 소홀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지역의 재가노인복지센터의 현황을 보면, 2010년 9월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9992명으로 만명에 이르며, 등급외 판정 대상자를 합하면 1만4500명이다. 이에 요양기관을 보면 시설은 86개소, 재가노인복지센터는 452개소나 되고 있는 실정이다. 등급외 판정 대상자를 제외하고 평균 요양기관에 18명 골이다. 장기요양기관이 과다지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재가 시설 간의 경쟁, 급여비 부당허위청구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좀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보면, 재가요양기관·대상자·요양보호사의 3자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에게 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상자는 재가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에게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요양보호사와 재가요양기관은 상호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간 승-승하는 게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서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가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자기계발과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요양보호사와 재가요양기관의 상호신뢰관계를 구축하기 힘이 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풀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교육으로부터 매듭을 풀어가야 할 것이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 각 대학에 평생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를 위한 재직자 훈련프로그램을 노동부에 승인받아 고용보험을 통한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것이다. 재가요양기관은 훈련비용을 들이지 않고 요양보호사에게 질 높은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보호사는 질 높은 교육을 통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하며, 대학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고 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면 재가요양기관, 대학, 요양보호사, 대상자 모두 승-승 관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광주지역에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수가 5만 명이 넘었다.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만 해도 6500명이나 되고 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그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역부족한 듯하다.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장애인복지 영역까지 요양보호사업이 시작되면 요양보호사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이제 요양보호사의 질 관리를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요양사업으로 발돋움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간 승-승 관계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송원대학 사회복지과 교수·행정학박사〉

無等鼓

수명의 진실

1980년대 초 마이클 로즈라는 과학자가 초파리를 대상으로 노화실험을 했다. 초파리를 실험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한 세대가 2주에 불과해 노화과정을 단기간에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즈박사는 우선 초파리를 두개 집단으로 나눠 한쪽 집단에서는 맨 처음 낳은 알들을 수거해 부화시키고 그 초파리들이 자라면 마찬가지로 맨 처음 낳은 알을 수거해 다시 다음 세대를 부화시켰다. 다른 한쪽 집단에선 가장 나중에 낳은 알들을 골라 번식시켰다.

결과는 놀라웠다. 후자 집단의 평균 수명이 33일에서 43일로 약 30% 가량 늘었다. 후자 집단의 초파리들은 더 오랫동안 살아 있어야 후손을 남길 수 있으므로 수명이 늘어난 것이다. 초파리 실험이 주는 의미는 종족번식과 수명과의 연관관계에 있다. 종족번식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춤에 따라 수명이 조절된다는 것이다.

초파리 실험과 유사한 연구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 뉴캐슬대학 연구팀은 과학전문지 '아메리칸 사이언티스트'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여러 동물의 성별(性別) 평균 수명을 조사한 결과 침팬지·바다사자·돌고래는 물론 심지어 모기까지 암컷의 수명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수명이 짧은 이유는 술·담배·업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성의 몸과 세포는 번식을 위해 강력한 치유·재생 능력을 갖추도록 진화한 반면 남성은 유전자를 전달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이같은 치유·재생 능력이 떨어져 일찍 사망한다는 얘기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남자가 76.4세, 여자가 82.9세. 남자 입장에서 6년 정도 덜 산다고 억울하지는 않지만 첨단 의료과학시대에도 종족 번식의 엄혹한 현실을 깨닫게 하는 자연의 섭리가 그저 놀라울 뿐이다.

/장필수 사회부차장 bungy@kwangju.co.kr

고시원 소화기 등 비치 겨울철 화재 대비해야

겨울이 다가오니 화재가 걱정된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고시원 화재 사고로 인명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화재는 철저한 관리와 대비가 필요하지만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곳이 바로 고시원이다.

고시원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쪽방과 비좁은 통로 등으로 인해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고시원들이 입주자를 많이 받기 위해 쪽방 수는 최대한 많게, 복도는 가능한 한 좁게 설계하기 때문이다.

고시원은 저렴한 가격으로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노동자 등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숙박공간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소방당국은 상시로 고시원의 화재 경보음 작동 여부와 소화기 비치, 작동상태 등을 점검해 화재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 고시원들도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전면적으로 다시 재점검하고 화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유치상·광주시 북구 누문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